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협력업체들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기업 이익개선에 중소기업의 눈물이 깔려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 결정 애로조사'를 한 결과 납품단가 협상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4.3%였다. 매출액별로는 1억~5억원 미만(33.3%)의 기업이, 업종별로는 '조선'(19.3%)

이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

부당 납품단가 결정 이유는 '거래처의 가격경쟁에 따른 원가 인하 전가'가 58.1%로 가장 많았다.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0%),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원가 인하(9.3%) 등이 뒤따랐다.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 중 34.9%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의 강요했다고 응답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

답한 비율도 23.3%였다.

협력업체들은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2.8%)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전가돼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부당 단가결정에 대응하는 업체는 9.3%로 많지 않았다.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건비 비중이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가장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은 노무비(47.9%)이고, 그 다음은 재료비(38.7%)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바라는 정책 방향은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 판로 다변화(19.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등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뤄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기보다 공정한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재용 기자

FIFA U-20 월드컵 응원 편지쓰기

전북우정청, 전주조초초 방문

전북우정청은 22일 전주조초초등학교를 찾아 축구부원 40여명과 함께 FIFA가 주최하는 20세이하 유소년 축구 월드컵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편지쓰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1일까지 펼쳐지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기 위해 우체국과 학교가 함께 응원 편지쓰기를 기획했고, 김병수 청장은 미래 국가 대표를 꿈꾸는 전주조초초등학교 축구부원들에게 축구공을 선물했다.

축구부 주장인 권태성 학생은 "우

리나라 대표팀의 우승을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대표 이승우 선수에게 응원편지를 썼다"며 "나도 이승우 선수처럼 열심히 운동해서 훌륭한 축구선수가 돼 후배들에게 응원편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청장은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혁신이 화두인데 인성이나 지성교육에 있어 편지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편지쓰기 운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꿈을 가꿔갈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치솟는 계란값에 외국산 계란 수입카드 꺼내 들어

수요 증가·산란계 공급 부족 현상 심화 원인

지난 설 명절 연휴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계란값이 최근 들어 수요 증가와 산란계 공급 부족 현상 심화로 다시 치솟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가 다시 한번 외국산 계란 수입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올해 초 처음으로 미국산 계란을 수입해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급등하던 계란값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봤었다. 이번에는 덴마크와 태국 등지에서 계란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던 계란 평균 소매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10일에는 7901원까지 뛰었다.

이는 한달 전 가격인 7479원보다 400원 이상 오른 가격이며, 1년 전 가격인 5249원보다는 2600원 이상 급등한 수준이다.

최근 AI가 찾아들었는데도 계란값이 다시 치솟는 것은 수요는 거의 AI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는데도 미국산 계란이 현지 AI 발생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덴마크와 태국 등지에서 계란을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위생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해상운송비 50% 지원, 병리리 수입 지원 기간 연장(4월~6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6월~12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농가에서는 AI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은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해 계란을 생산하고 있지만 최근 시간이 지나면서 노계 비율이 증가해 산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갈수록 수입이 불안해지는 요인이다.

산란계는 보통 80주까지는 연간 약

250~300개의 알을 낳고, 80주가 넘으면 연간 150개 안팎으로 산란율이 뚝 떨어진다.

하지만 최근 산란계가 워낙 부족해진 일선 농가에서는 도살해 식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100주 안팎의 노계까지도 산란계로 활용하다 보니 산란율이 현저히 떨어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AI가 잦아드는 추세인데도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계란 품귀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일부 유통상들이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기 위해 매점매석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JB멘토링 문화체험 실시

전북은행은 지난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의 큰 꿈을 지원하는 '제25회 JB멘토링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문화체험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세계 각국의 차세대 축구스타들이 참여하는 FIFA U-20 월드컵 경기를 직접 관해 봄으로써,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행 직원 및 대학생, 호성보육원 아동 등 70명은 멘토와 멘티로 만나 FIFA U-20 월드컵 개막식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한국과 기니 축구경기를 관람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아동들이 축구경기를 보며 우리 지역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가졌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전주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저소득가정 아동 축구경기 티켓 지원, KBS 뮤직뱅크 후원 등에 앞장서며 지역유일 항토은행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JB멘토링 문화체험'은 전북은행 임직원 급여1% 성금을 통해 201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북은행 직원들이 문화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멘토가 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캠코-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캠코 전북본부와 전주시는 22일 전주 시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체납조세업무, 사회공헌활동 및 서민금융업무 등 양 기관의 연관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일괄공매 의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확대, 서민 금융지원업무 대상자 연계 및 홍보, 국유 재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게 된다.

캠코는 그동안 체납 지방세 공매를 통해 전주시 재정수입에 기여해왔을 뿐 아니라, 올해 1월에는 송천동에 위치한 다문화지역아동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인 '캠코브러리'를 개관해 어린이를 위한 도서지원 및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강희중 캠코 전북본부장은 "이번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향후에도 전주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기사제보 288-9700

농진청, '자연이 빛은 예술, 발효!' 특별전시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23일부터 31일까지 농업과학관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활 속 발효과학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이 빛은 예술, 발효!'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생활 속의 발효식품, 발효식품의 상품화, 신소재로의 진화 등 3개의 소주제로 구성된다.

전시회에서는 우리 생활 속의 다양한 발효미생물과 과거에 사용되던 발효도구 등을 실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대표 발효식품 30여종이 전시된다.

특히, 15명의 발효식품 명인이 생산하는 주류, 장류, 김치, 식초 등 실용

화된 제품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발효식품 연구 성과를 함께 전시해 발효식품의 산업화 가능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발효기술을 접목한 농가 수익 모델 성공사례와 수출상품을 볼 수 있으며 식의약품, 산업용 신소재, 환경에너지 등 차세대를 이끌 바이오 제품 등을 다양하게 전시한다.

이진모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번 전시회가 어린이들에게는 발효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함, 탐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유망 발효기술이 농업인과 농산업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전시·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